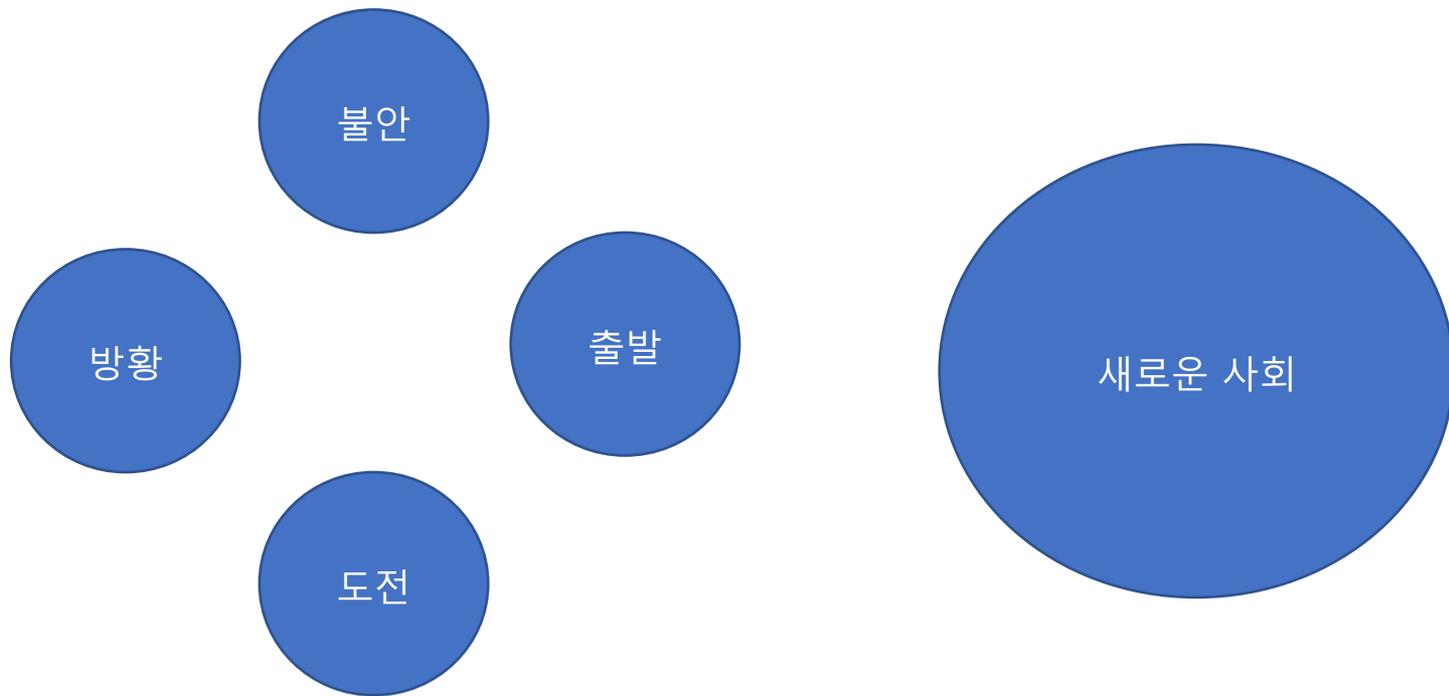


우리가 가야할 길 이게 삶이나에 대한 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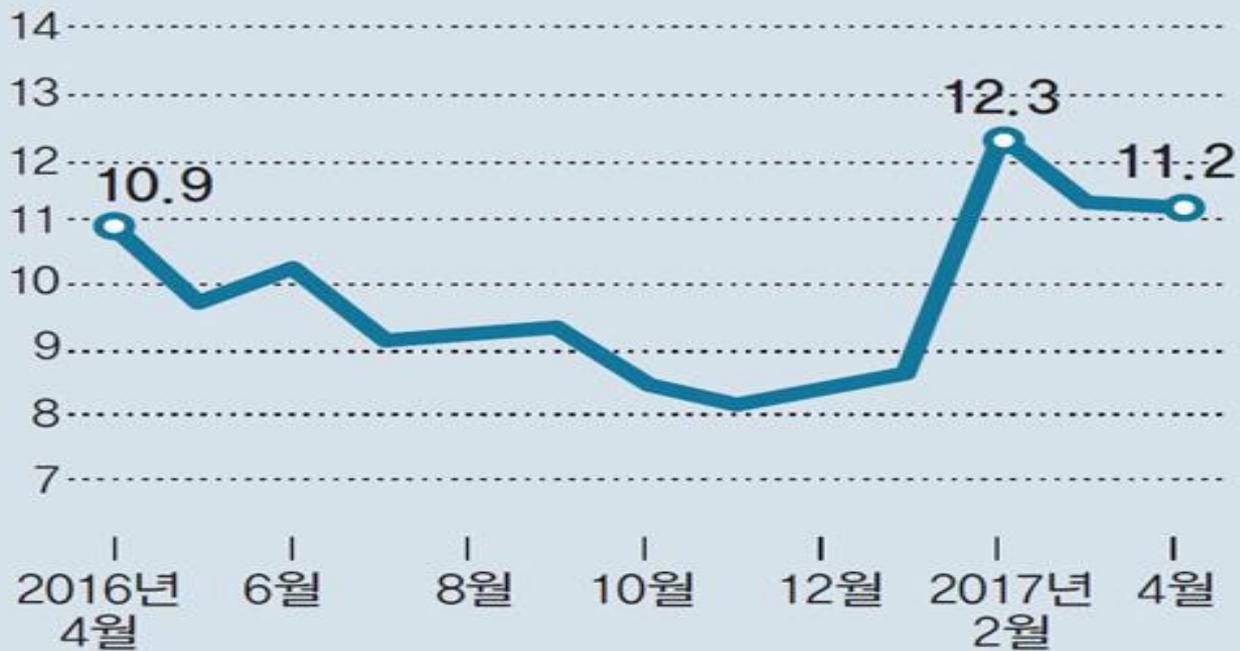


서울은평구갑
국회의원 박주민

청년의 의미



청년층(15~29세) 실업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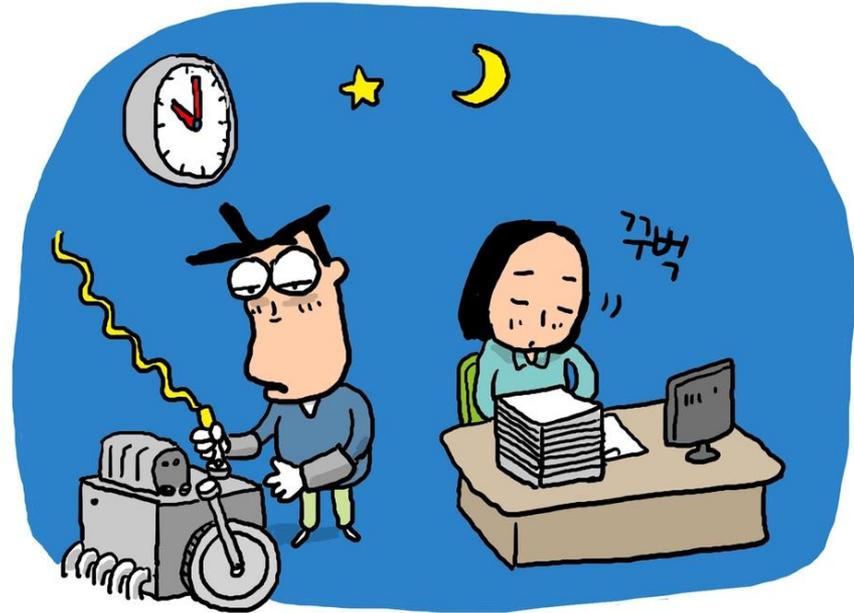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올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대를 회복한 데 힘입어 내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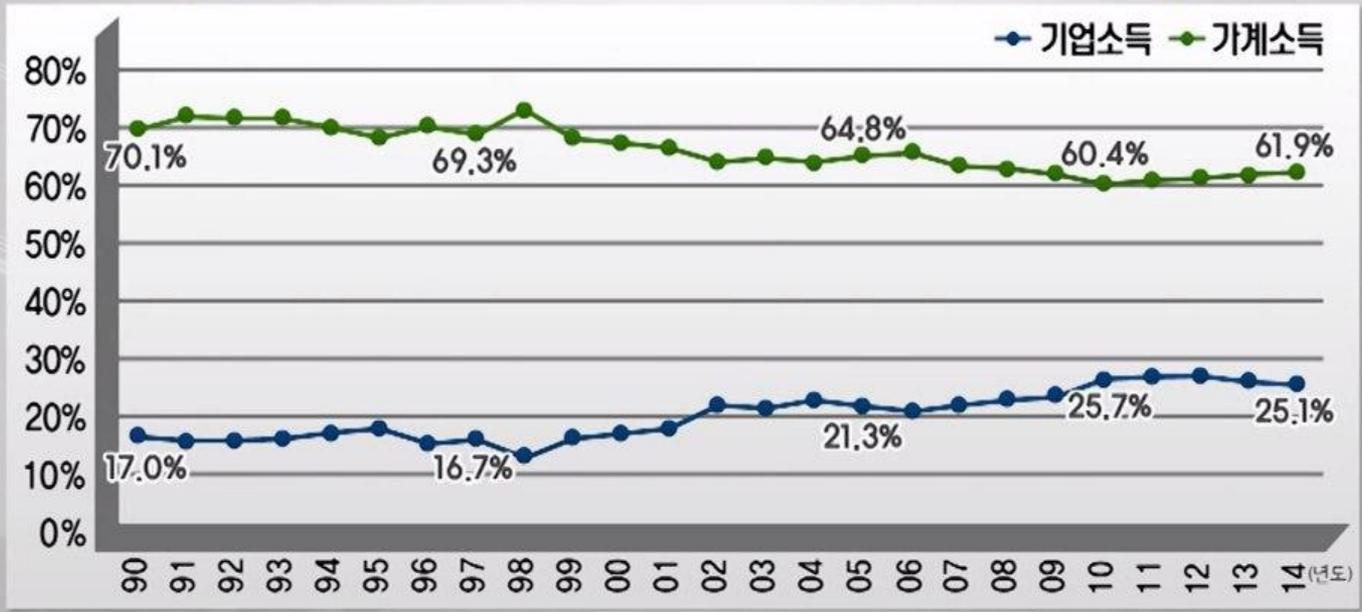
2006년 2만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이다. 문제는 국민의 실제 삶의 질 수준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지난해 28위, 올해 29위로 떨어졌다.

특히 가계소득(23위) 주거(27위) 일과 삶의 균형(35위) 등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삶의 질로 따지면 여전히 1만달러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3인가족 한가족당 평균수입이 1억원 가깝게 되어야 하는데 90% 이상은 남의 일이고.. 6년차. 휴가 보장도 남의 일이고
잔업. 특근. 야간수당도 남의 일이고
52 시간 근무도 남의 일이고. 2018년엔 내 일처럼 될까 🐼

국민총소득 중 기업및가계 소득 비중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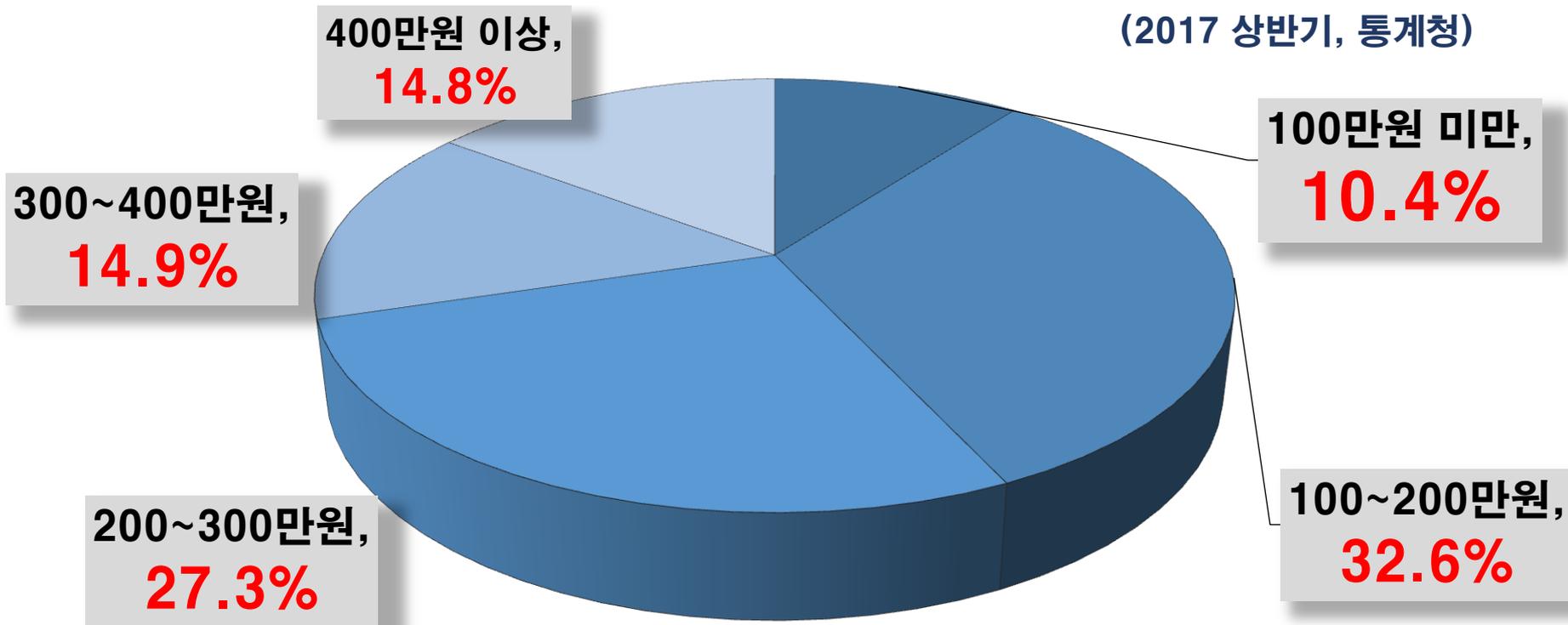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2인이상,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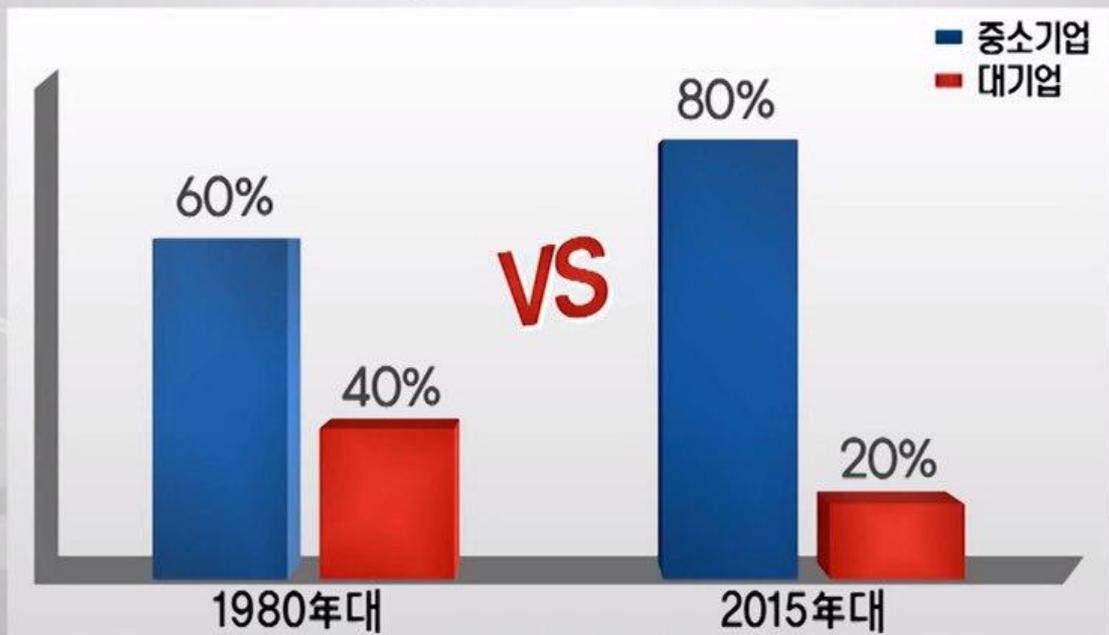
가계수지항목별	2017 2/4			2017 3/4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가구원수 (명)	3.11	3.21	2.94	3.10	3.18	2.95
가구주연령 (세)	51.59	48.52	56.90	51.76	48.70	56.95
가구분포 (%)	100.00	63.44	36.56	100.00	62.94	37.06
소득 (원)	4,346,509	4,708,183	3,718,947	4,537,192	5,028,695	3,702,504
경상소득 (원)	4,226,579	4,624,915	3,535,400	4,451,898	4,950,335	3,605,434
근로소득 (원)	2,877,789	4,086,401	780,652	3,066,965	4,401,796	800,104
사업소득 (원)	891,494	204,383	2,083,744	915,875	218,659	2,099,912
재산소득 (원)	17,315	13,413	24,086	18,820	11,982	30,431
이전소득 (원)	439,980	320,719	646,918	450,239	317,897	674,986
비경상소득 (원)	119,931	83,268	183,547	85,294	78,360	97,070
비소비지출 (원)	809,007	916,335	622,775	863,659	978,957	667,855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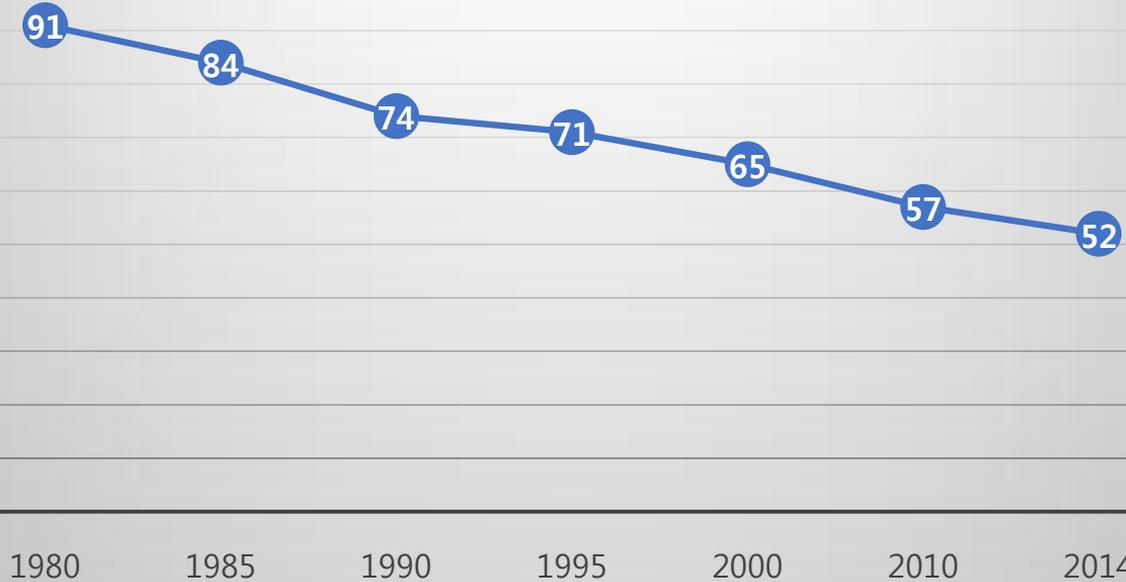
(2017 상반기, 통계청)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비중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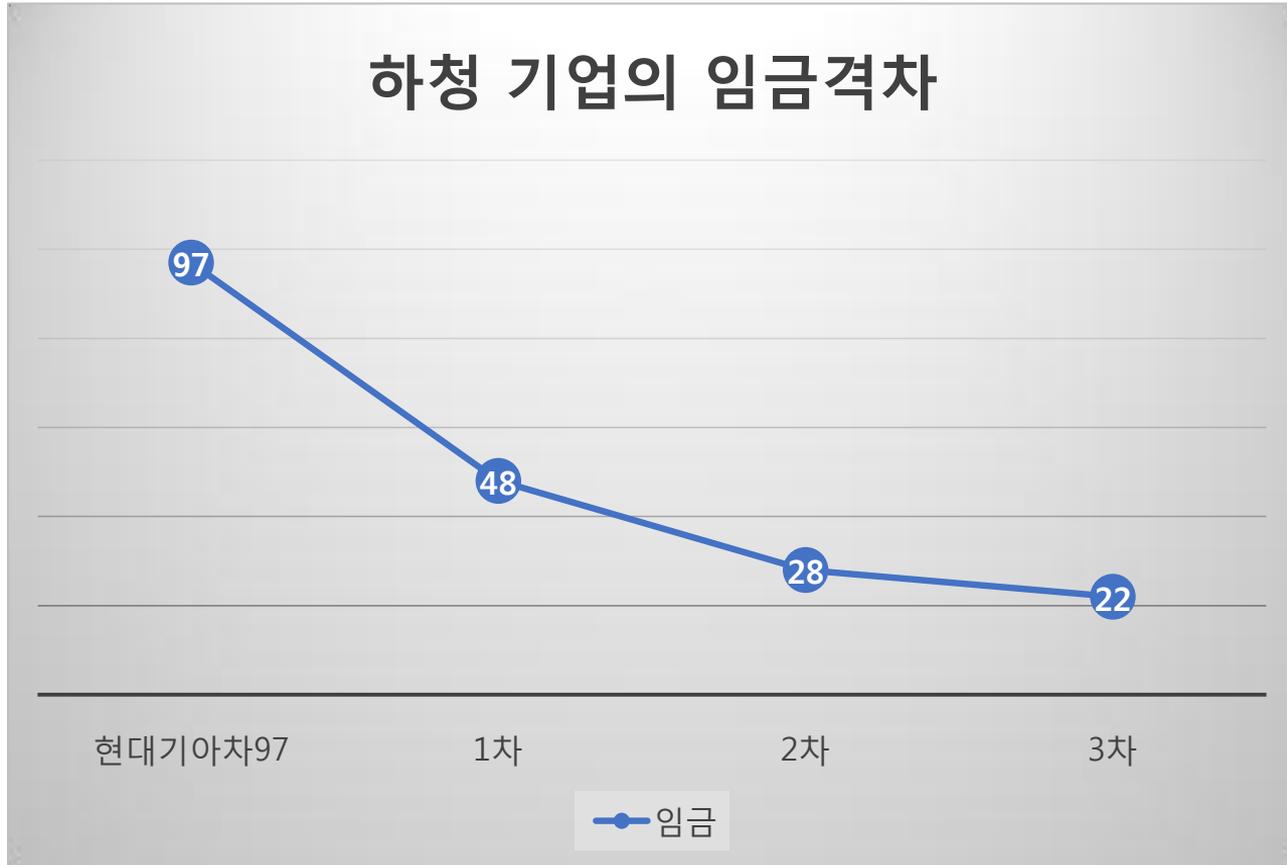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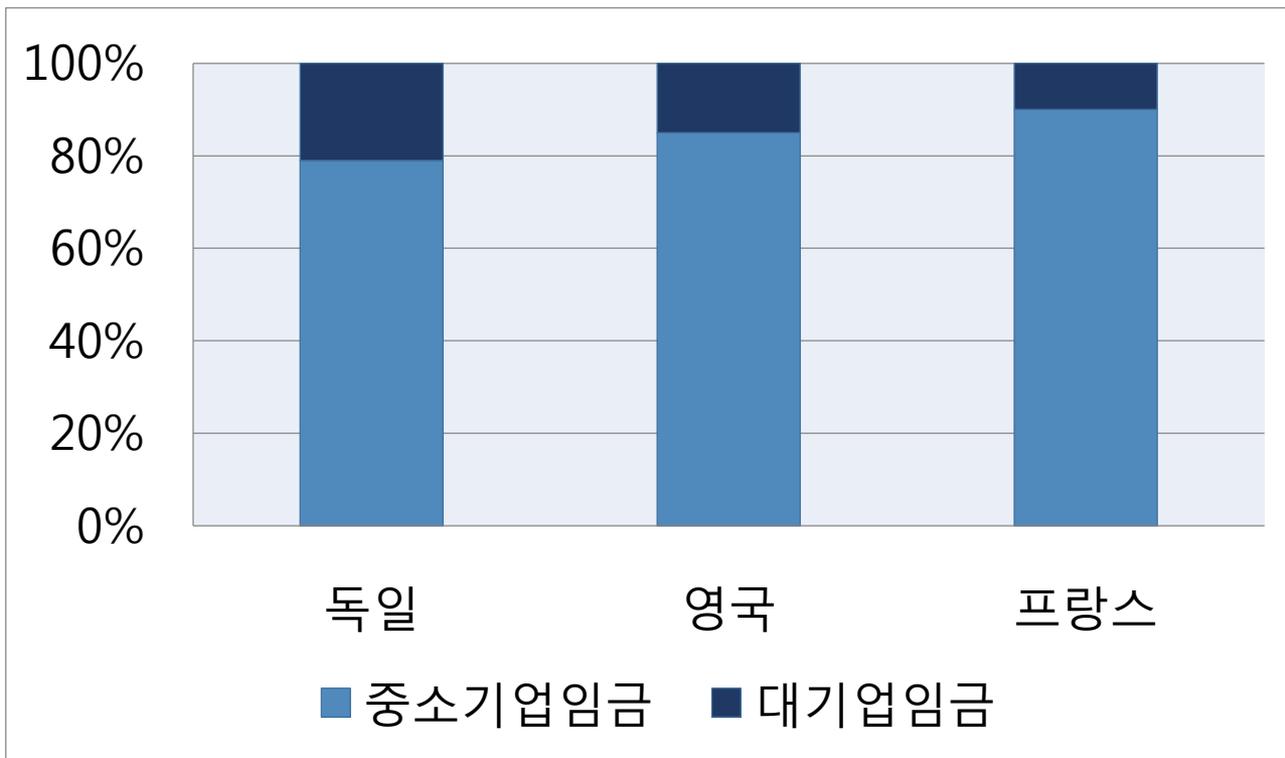
구분	2007	2016
1~4인	127만6천원	169만6천원
5~9인	195만1천원	250만3천원
10~99인	2366만9천원	295만6천원
100~499인	278만1천원	357만1천원
500인 이상	374만7천원	541만6천원

하청 기업의 임금격차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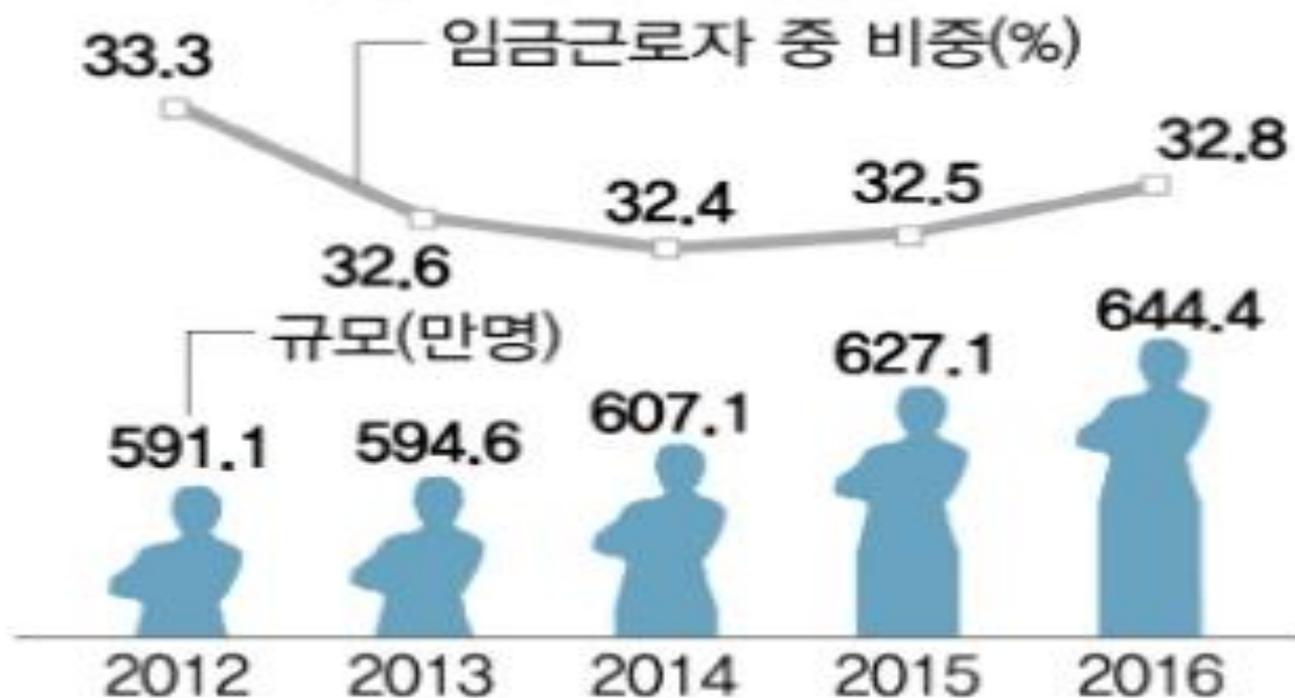
외국의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영업이익률의 차이

	대기업	중소기업
독일	5.8%	7.6%
프랑스	8.7%	8.0%
삼성전자	10.1%	3.3%
현대자동차	8.7%	2.2%

다시 불어나는 비정규직



■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 추이 (단위: 만원)



임시직 노동자가 영구직으로 전화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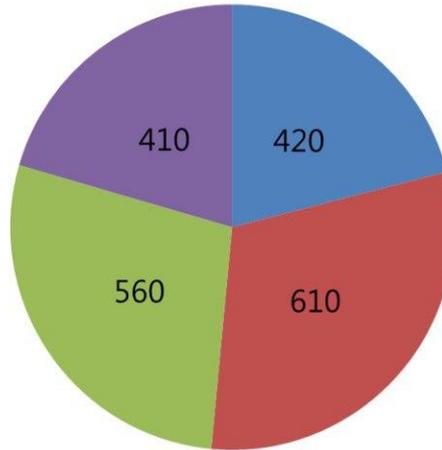
(2013)

- ✓ 1년 후 11.1%
- ✓ 3년 후 22.2%

통계 제공된 16개 **OECD 회원국 중 최저!!**

노동시장 분절 (차별) 현황 - 임금근로자 기준

*단위 - 만명



■ 고임근로층(월보수 400만원 이상) ——— 대기업정규직(280), 공공부문정규직(150)

■ 중임근로층(월보수 200-400만원) ——— 대기업비정규직(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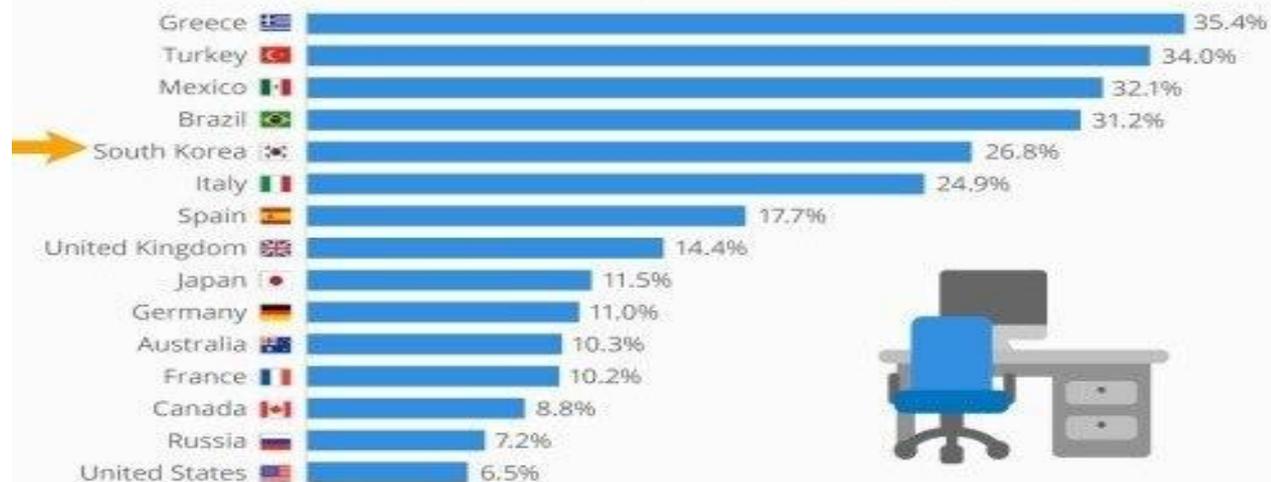
중소기업정규직(880)

■ 저임근로층(월보수 100-200만원) ——— 공공부문비정규직(50)

■ 한계근로층(월보수 100만원 미만 및 근로소득 미신고) ——— 중소기업비정규(400)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Self-Employment Rates

Self-employment as a % of total employment in selected countries (2014 or latest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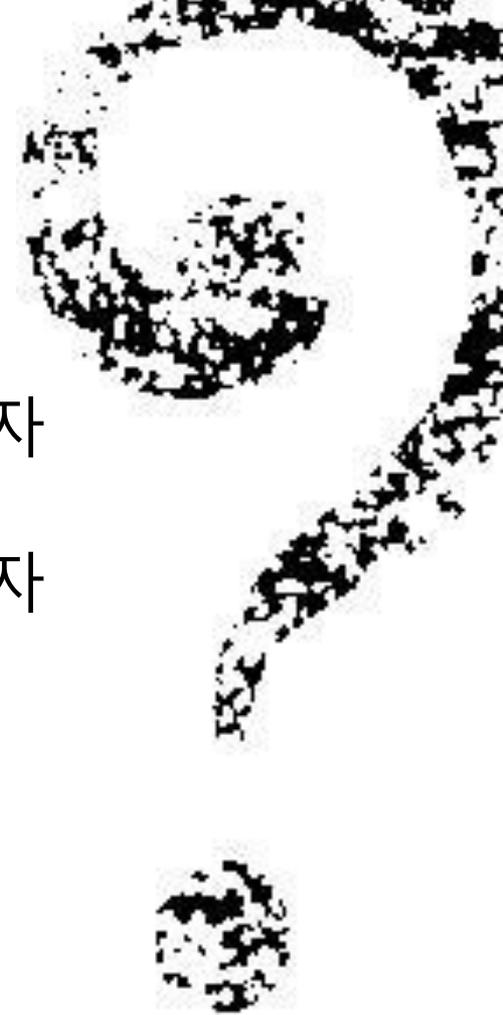
© StatistaCharts Source: OECD

statista

“개천에서 용 난다?”

- ✓ 미국 100대 부자: 78명 창업자, 22명 상속부자
- ✓ 한국 100대 부자: 16명 창업자, 84명 상속부자
(자본주의 역사 20년)

*전체 창업의 63%가 생계형으로 분류



경제성장과 실질임금의 격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일자리 증가(단위=%)



*1990~2015년 경제성장과 가계소득, 일자리 누적증가율. 자료=장하성 고려대 교수 논문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 소득 및 부의 불평등도와 경제성장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성장과 분배가 상충관계를 갖는다는 전통적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

- ◆ Persson and Tabellini (1994)은 56개국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비중을 7%(1 표준편차) 늘릴 경우 평균성장률이 0.5%p 가량 하락함을 보임
- ◆ Alesina and Rodrik (1994)에 의하면, 70개국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토지소유의 지니계수를 1 표준편차만큼 늘릴 때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매년 0.8%p 하락
- ◆ Clarke (1995), Perotti (1996) 등도 다양한 불평등도 지표와 경제성장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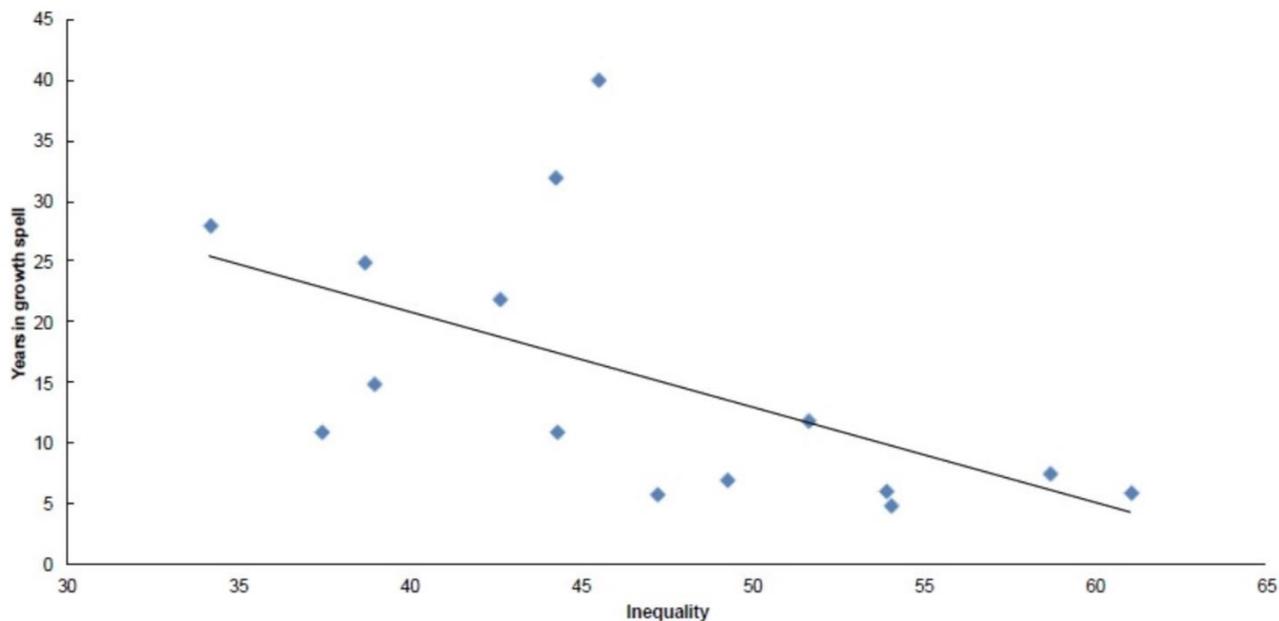
다른 한 편으로 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짐

- ◆ Easterly and Rebelo (1993), Perotti (1996) 등에 의하면 재분배정책 지표들(한계 및 평균세율, 다양한 사회보장 지출 등)과 경제성장률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그림 1>

분배와 경제성장의 지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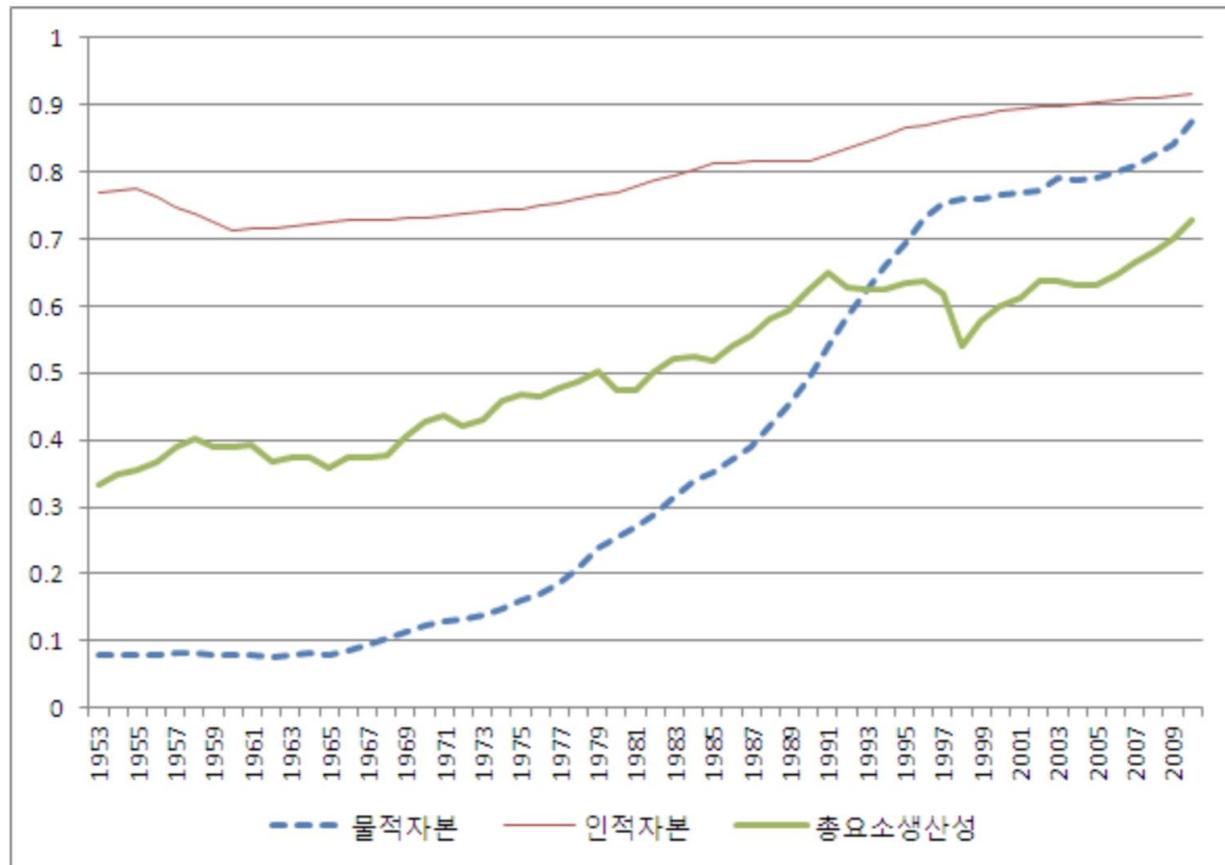
Figure 2. Duration of Growth Spells and Inequality



Source: Penn World Tables and Wider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Note: This figure includes spells that end in-sample (completed spells) only, because the length of incomplete spells is unknown. For this figure, minimum spell length is five years.

<그림 4> 한국의 성장동력 - 미국 대비 비율 추이



◆ 우리나라의 미국 대비 물적자본 수준은 90%에 이르나 생산성 수준은 63%에 불과
(2009년 기준)

※ 혁신의 역사(Harvard Business Review 2012.9월호)

- 1세대: 개개인의 발명가 중심(에디슨, 라이트형제 등)
- 2세대: 대규모 연구실(듀폰-나일론, P&G-치약,기저귀,세제)
- 3세대: 벤처캐피탈을 활용한 벤처기업(애플, MS, 구글)
- 4세대: 비즈니스 모형(생태계)-대규모 기업들과 신규 창업자들의 아이디어가 연결된 상생의 네트워크(아마존-킨들-콘텐츠, 구글-안드로이드, 애플-애플리케이션 개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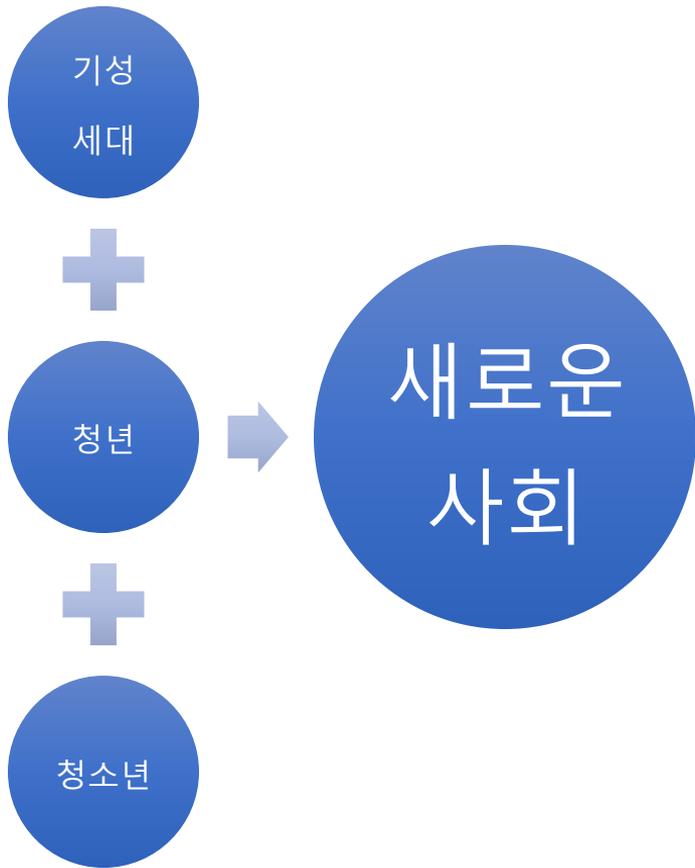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2세대 중심이며, 3세대에 진입 후 정체된 상황. 따라서 창업과 벤처가 활발해지고, 이들의 아이디어가 기존 대기업의 자원 및 인프라와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이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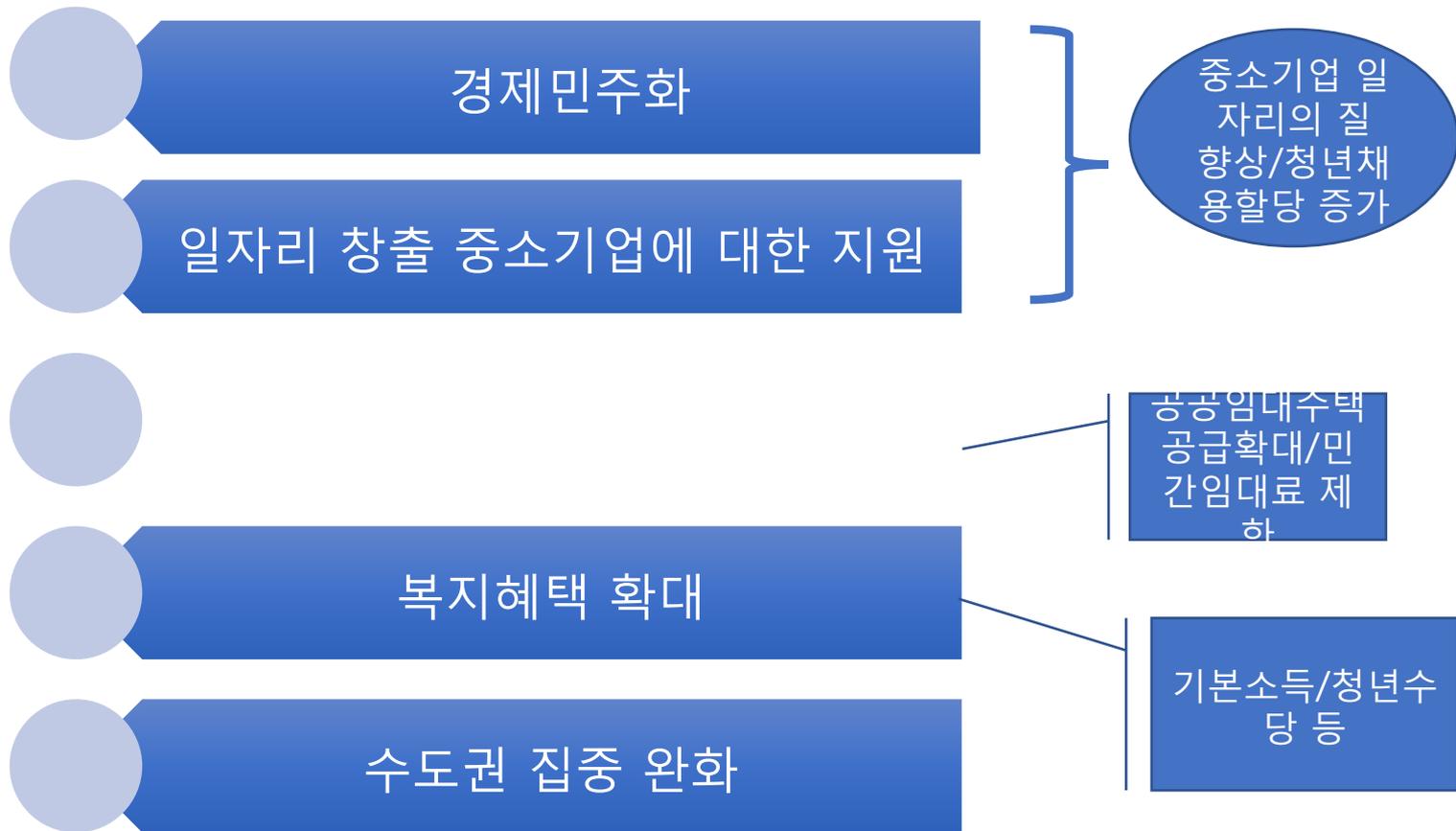
◆ 추격자 전략에서 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하여 선진국이 되는 조건이기도 함.

미국 소득계층 상위 10%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 <21세기 자본> 토마스 피케티





대통령 산하의 청년위원회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이행상황 점검

각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수립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창업 등 지원하는 내용